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1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2
3. 시사점	12
【HRI 경제 통계】	17

< 요약 >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중국정부는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진출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외진출 전략을 국가의 공식시책으로 채택하여 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UNCTAD에 의하면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규모(ODI Flow)는 1990년에 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연평균 3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1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잔액 및 주요 관련 정책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 및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적 위상, 투자주체, 투자지역, 투자산업, 투자형태 등 5가지로 나누어 각각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1990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Flow) 및 잔액(Stock)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2%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05년부터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2013년에는 각각 7.2%, 2.3%를 기록하였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1990년 21위에서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3대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둘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민간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투자액의 72.0%를 차지하였다. 민간기업의 투자금액 비중은 2005년 9.9%에서 2013년에는 25%로 급증하였다. 투자대상 산업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에너지와 금속분야를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로 볼 때, 직접투자 비중은 여전히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2005년 50.3%에서 2013년 29.5%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에 대한 투자는 최근 2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의 투자대상 산업을 보면 대체로 에너지, 교통·물류, 부동산 등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투자대상 산업별로는,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2005~2013년 사이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 71.4%에서 2013년 61.2%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 79.7억 달러에서 연평균 34.3%의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모든 분야중 규모가 가장 큰 627.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섯째**, 투자형태별로 볼 때, M&A의 투자비중이 Green Field를 빠르게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M&A와 Green Field 형태의 투자비중은 각각 10.4%, 89.6%로 Green Field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3년에는 M&A와 Green Field가 각각 72.2%, 27.8%를 차지, M&A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 M&A 투자는 2005년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1990년보다 38배 정도 증가한 50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시사점

향후 중국정부가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승인금액의 상향 조정 등 제도적 정비를 지속하면서 투자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변화는 중국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비교우위를 보여주는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기업의 급속 성장에 대응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중국은 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유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소비재와 같은 상업적 수에 대한 민간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이 덜 된 산간지역이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항만 등 지역에서 그린필드형 투자 등 형태로 중국 투자자금을 적절히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우리 기업들이 중국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 기술보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정부가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전략적인 해외투자를 유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1.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 중국정부는 시장 개척과 자원확보를 위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진출 행보를 넓혀가면서 해외직접투자가 2005년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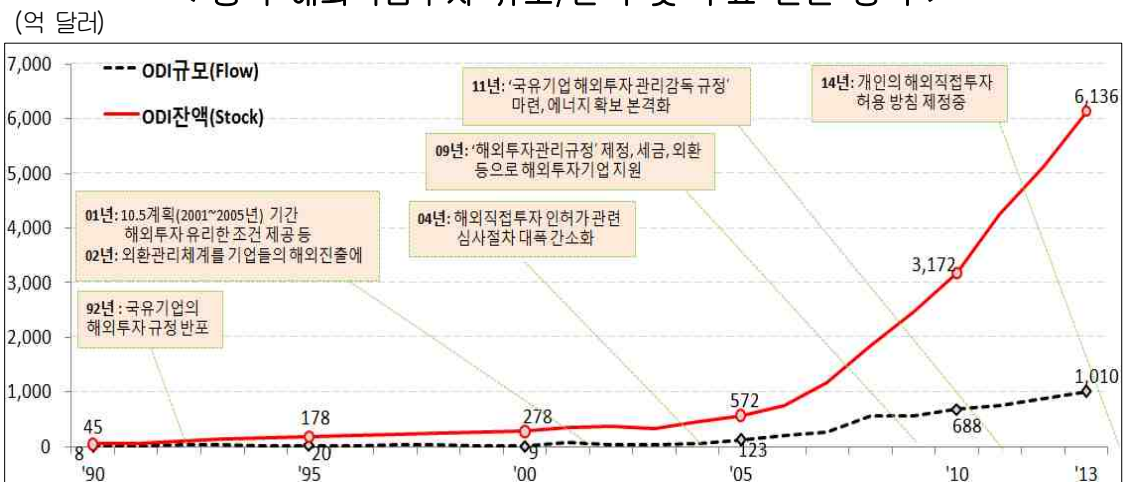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 Oversea Direct Investment 혹은 Outward FDI)는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 중국은 1992년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규정을 반포하면서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기 시작
- 특히,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외진출 전략을 국가의 공식시책으로 채택하여 10차 5개년(2001~2005년) 계획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킴
- 2009년에는 ‘해외투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세금, 외환 등으로 해외투자기업 지원하기 시작, 2011년부터는 ‘국유기업 해외투자 관리감독 규정’ 마련하여 에너지 확보 본격화

- UNCTAD에 의하면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부터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

-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규모(ODI Flow)는 1990년에 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123억 달러 기록, 그 뒤로 연평균 3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10억 달러 달성
- 투자잔액(ODI Stock)도 1990년 45억, 2005년 572억 달러를 기록, 2007년에는 1,179억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을 돌파한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6,136억 달러 달성

<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잔액 및 주요 관련 정책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

1) 분석 방법

○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 및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UNCTAD 및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
 - 중국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중국상무부 자료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중국 상무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조세피난처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UNCTAD 데이터는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각 연도의 투자형태별(M&A 및 Green Field) 규모(Flow)와 잔액(Stock) 기준으로 모두 제공
 - The Heritage Foundation 데이터는 중국의 건당 1억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 사례를 2005년부터 제공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을 국제적 위상, 투자주체, 투자지역, 투자산업, 투자형태 등 5가지로 나누어 분석
 - 국제적 위상 및 투자형태는 UNCTAD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 투자주체, 투자지역, 투자산업은 모두 The Heritage Foundation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본 보고서 연구내용 및 Data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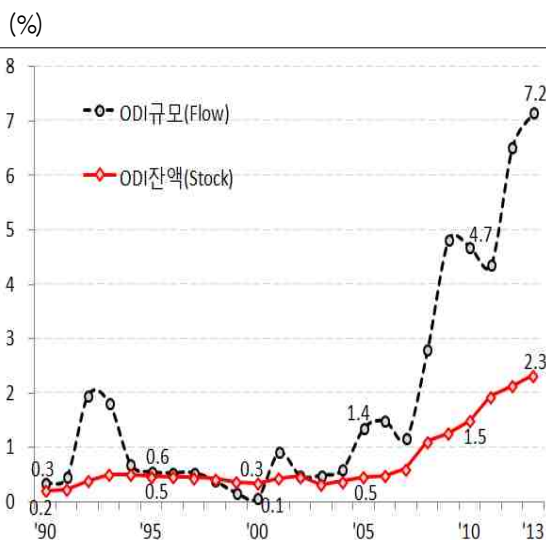
구분	연구내용	참고 Data	Data 특성
국제적 위상	· 1990~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	UNCTAD	·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잔액 집계
투자 주체	· 2005~2013년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직접투자 산업 및 지역 등	The Heritage Foundation	· 건당 1억 달러 이상인 사례만 집계 · 투자성사 금액 및 계약체결 금액 합산 기준으로 집계
투자 지역	· 2005~2013년 지역별 투자비중, 지역별 투자산업 등		
투자 산업	· 2005~2013년 주요 투자산업 등		
투자 형태	· 2003~2013년 M&A와 Green Field의 투자현황 등	UNCTAD	· M&A와 Green Field 투자의 순투자 규모 기준으로 집계

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5대 특징

① 국제적 위상 : 해외직접투자국으로써의 위상이 급격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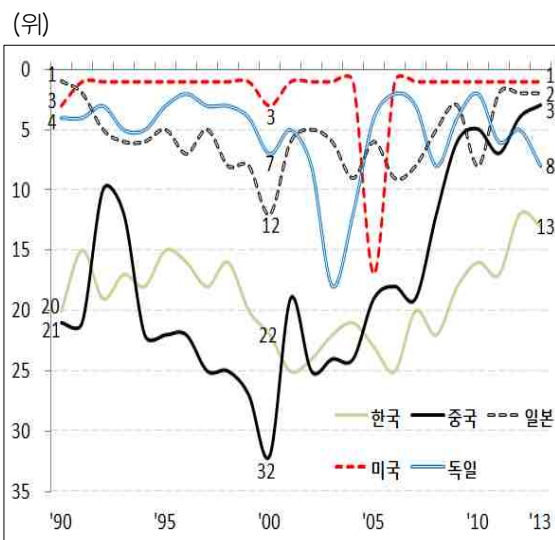
-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비중이 빠르게 증가
 - 1990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Flow) 및 잔액(Stock)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2%로 미미한 수준
 - 그 뒤로 2000년 초반까지도 여전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 나타났지만 2005년부터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
 - 2013년 해외직접투자 규모(Flow) 및 잔액(Stock)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2%, 2.3%를 기록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2000년대 들어서 부터 빠르게 제고되고 있음
 - 규모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1990년 세계 21위에서 2000년에는 32위로 추락하였다가 2012년부터는 독일을 추월, 2013년에는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제3대 해외직접투자 국으로 부상
 - 한편, 미국의 순위는 꾸준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2000년대 후반부터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 중국 ODI 규모/잔액의 세계에서의 비중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요국의 ODI 규모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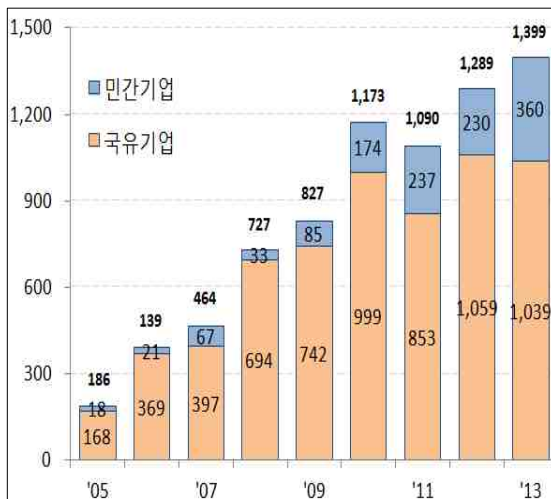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② 투자주체¹⁾ : 국유기업 중심, 민간기업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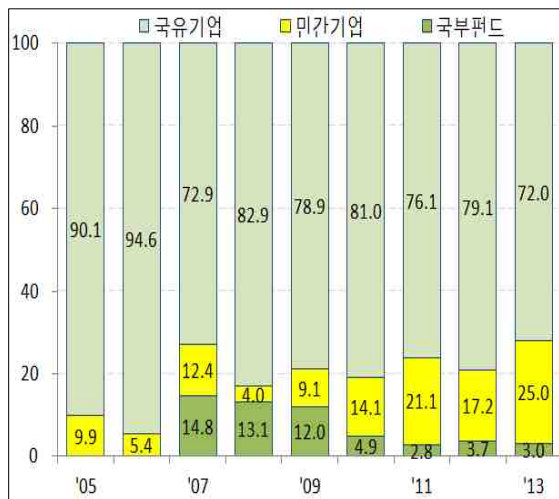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에너지, 금속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중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주체는 국유기업이지만, 2005~2013년 사이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국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05년 168억 달러(90.1%)에서 2013년 1,039억 달러(72.0%)로 크게 증가, 여전히 중국임 해외직접투자 최대 주체
 - 한편,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도 2005년 18억 달러(9.9%)에서 2013년 360억 달러(25.0%)로 빠르게 증가

< 국유/민간기업 직접투자 금액 >
(억 달러)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 국유/민간기업 직접투자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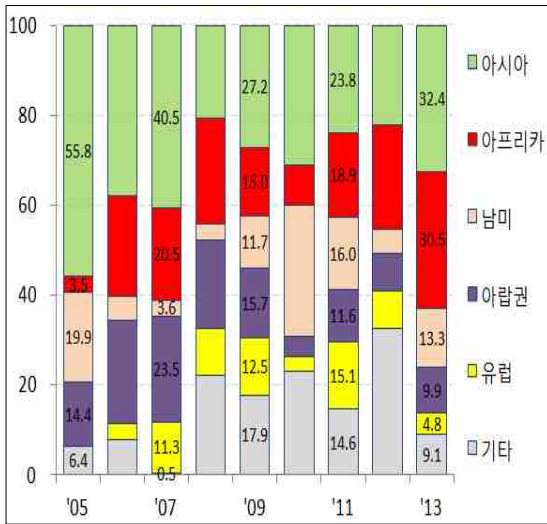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주 : 국부펀드는 단일주체로 투자한 것에 한 함.

-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직접투자 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의 對아시아, 아프리카 투자비중은 각각 32.4%, 30.5%로 나타남
 - 민간기업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14.9%, 23.3%로 집계 된 가운데, 최근 2년간 미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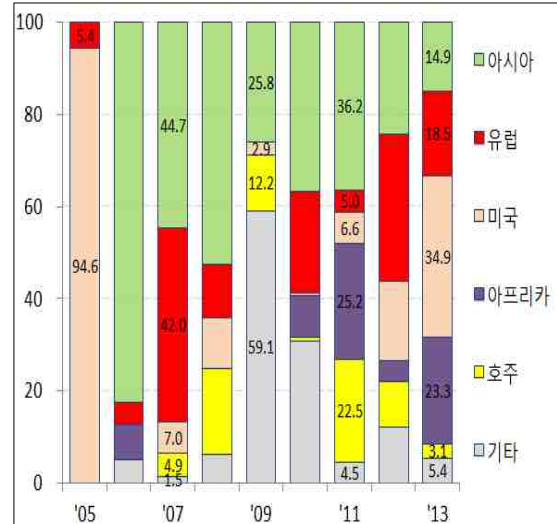
1) 투자주체에는 주로 국유기업, 민간기업, 국부펀드가 있으며, 국부펀드의 투자는 별첨2 참고.

< 국유기업의 주요 직접투자 지역 >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민간기업의 주요 직접투자 지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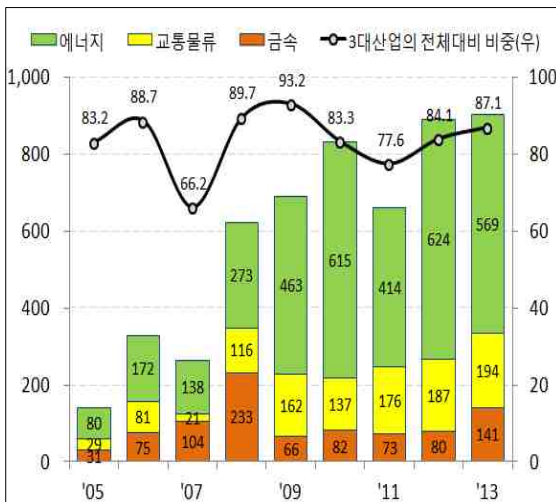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모두 에너지와 금속분야를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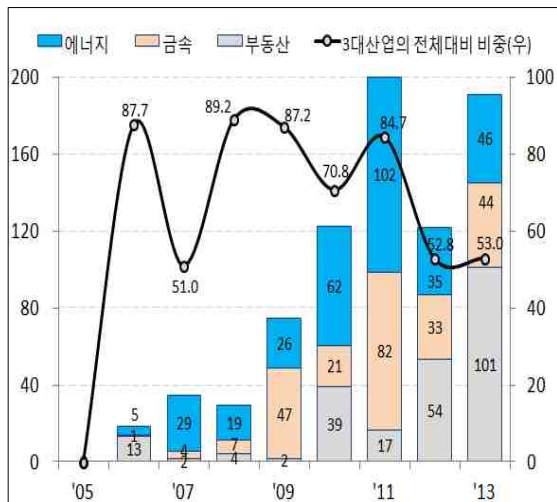
- 국유기업의 3대 해외직접투자 산업은 에너지, 교통·물류, 금속으로, 2013년 기준으로 3대 산업의 투자액은 연간전체의 87.1%를 차지
- 민간기업의 3대 해외직접투자 산업은 에너지, 금속, 부동산으로, 2013년 기준으로 3대 산업의 투자액은 연간전체의 53.0%를 차지

< 국유기업의 3대 직접투자 산업 >
(억 달러)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 민간기업의 3대 직접투자 산업 >
(억 달러)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③ 투자지역 : 아시아 중심, 미국은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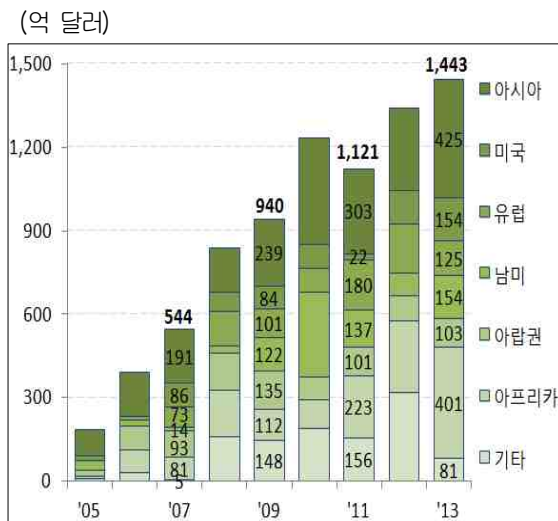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여전히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에너지, 교통·물류 산업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증가

· 아시아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5년 94억 달러에서 2013년 425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50.3%에서 29.5%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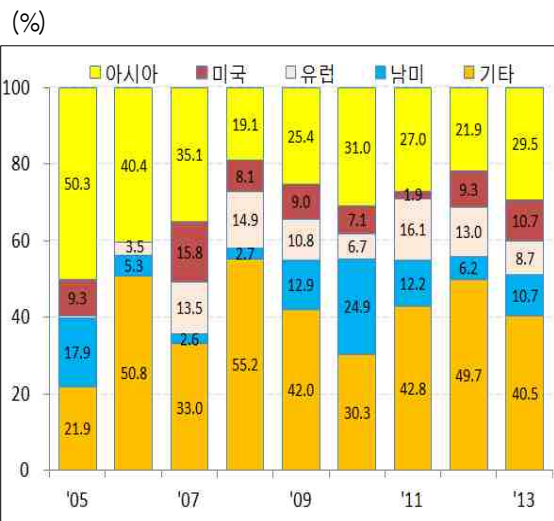
· 미국에 대한 투자는 2005년 17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54.3억 달러로 증가, 특히, 최근 2년간 투자비중도 연속 증가세 기록, 반면, 유럽에 대한 투자비중은 2년 연속 감소세

< 지역별 직접투자 금액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기타는 호주, 북미(미국제외)를 포함함.

< 지역별 직접투자 비중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기타는 아랍권, 아프리카, 호주, 북미(미국제외)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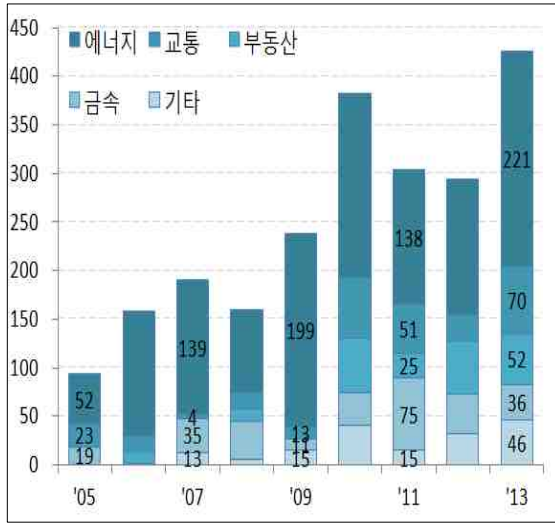
- 각 지역별 투자 산업을 보면, 대체로 에너지, 교통·물류, 부동산에 집중

·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에너지와 교통·물류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데, 2013년 기준으로 각각 221억, 70억 달러로 전체의 52.0%, 16.3%를 차지

· 남미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3년에는 감소하였지만 그 중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70.2%인 108억 달러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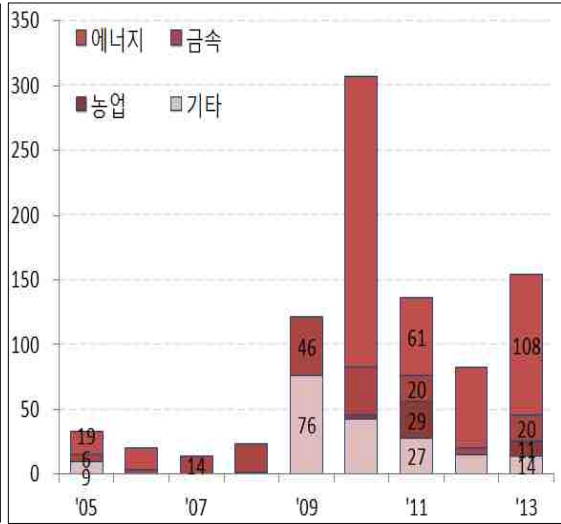
< 對아시아 직접투자 추이 >

(억 달러)



< 對남미 직접투자 추이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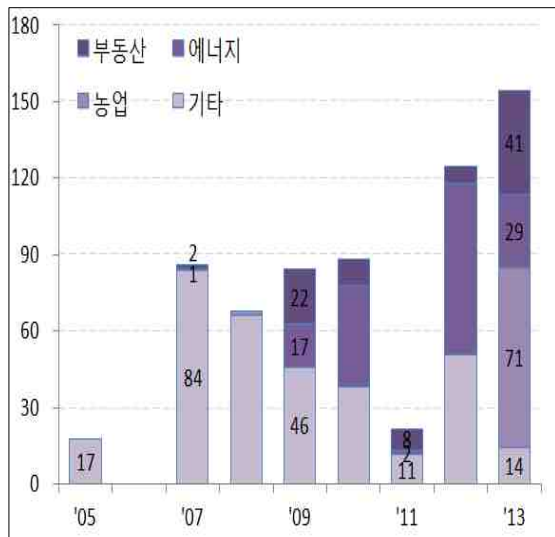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미국에서는 2012년 에너지 중심에서 2013년에는 농업과 부동산으로 전환, 특히 농업분야는 전체의 46.0%인 71억 달러로 가장 많음
- 2013년 對유럽 교통·물류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각각 37억(29.4%), 35억(27.9%)로 가장 큰 분야로 집계됨

< 對미국 직접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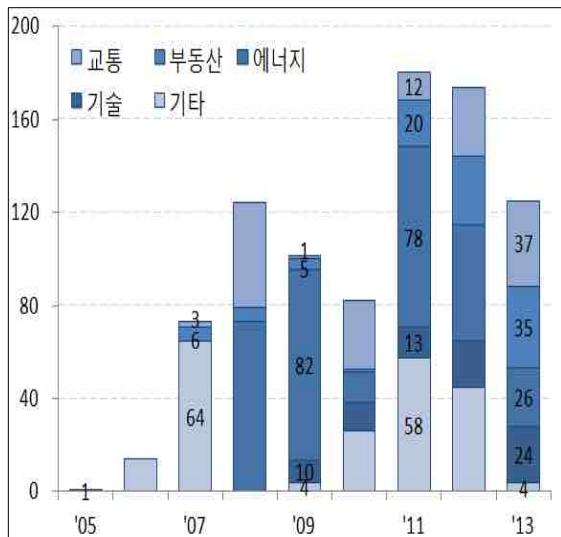
(억 달러)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對유럽 직접투자 추이 >

(억 달러)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④ 투자산업 : 에너지 및 교통·물류 중심으로 투자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에너지, 농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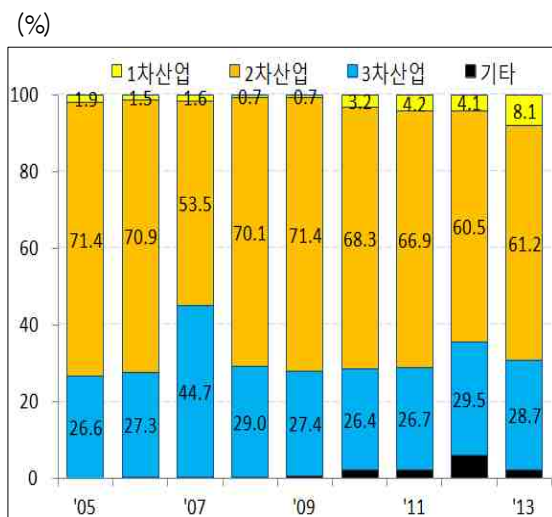
- 직접투자의 60% 이상은 제조업 분야에 투자

- 2005~2013년 사이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5년 71.4%에서 2013년 61.2%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
- 동기간 농업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1.9%에서 8.1%로, 26.6%에서 28.7%로 증가

- 세부분야별로 볼 때,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2010년부터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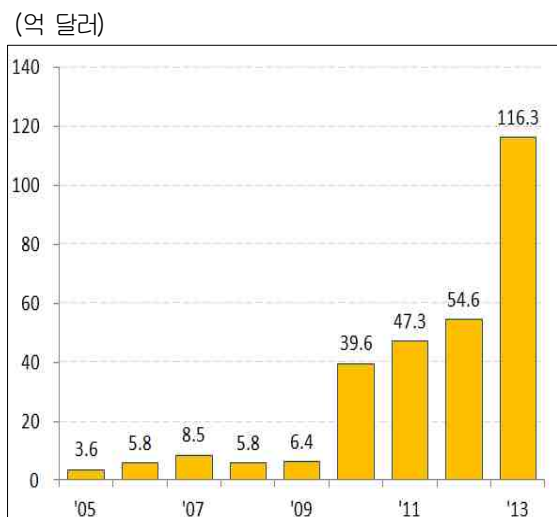
- 우선, 농업의 경우 2005년에는 3.6억 달러에 그쳤지만 2010년부터는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
- 2013년에는 2005년의 32배, 사상 최대치인 116.3억 달러를 기록, 따라서 2005~2013년 사이 중국의 對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54.4%기록

< 1, 2, 3차 산업별 직접투자 비중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기타는 목재, 섬유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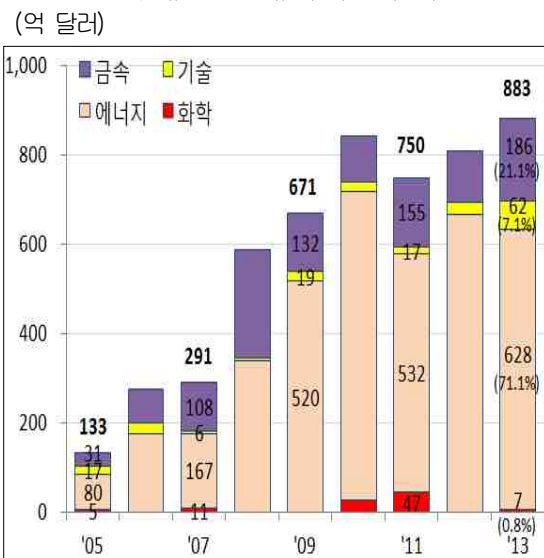
< 對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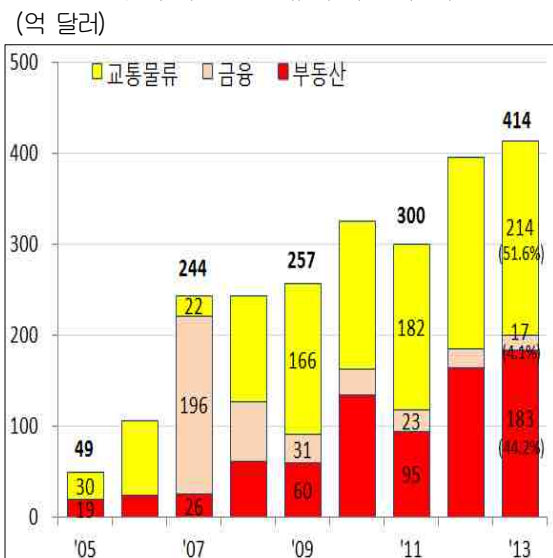
- 제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가운데 금속에 대한 투자도 안정적인 증가 추세
 -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투자액은 2005년 133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7배 이상 증가한 883억 달러 기록
 - 그 중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데, 2005년 80억 달러에서 연평균 34.3%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제조업 전체의 71.1%인 628억 달러 기록
 - 금속에 대한 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제조업 전체의 21.1%인 186억 달러 달성
-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부동산, 교통·물류 등에 대한 투자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남
 -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액은 2005년 49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8배 이상 증가한 414억 달러 기록
 - 그 중에서도 교통·물류에 대한 직접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30.3억 달러에서 연평균 32.2%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213.6억 달러 기록, 서비스업 전체의 51.6% 기록
 - 동기간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연평균 37.9%씩 증가하여 2013년에는 서비스업 전체의 44.2%인 183억 달러 기록

< 對제조업 해외직접투자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對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⑤ 투자형태 : M&A가 Green Field투자형태를 빠르게 대체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형태는 M&A(인수합병)의 투자비중이 Green Field (그린필드)를 빠르게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남

- M&A 및 Green Field의 순투자액 합산 기준으로 볼 때, 2003~2013년 사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6.4%의 속도로 증가

· 직접투자 방식은 JV(Joint Venture), M&A와 Green Field가 있는데, JV는 일반적인 지분투자, M&A투자는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 Green Field투자는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투자 형태를 말함

· 본 보고서에서는 M&A와 Green Field를 중심으로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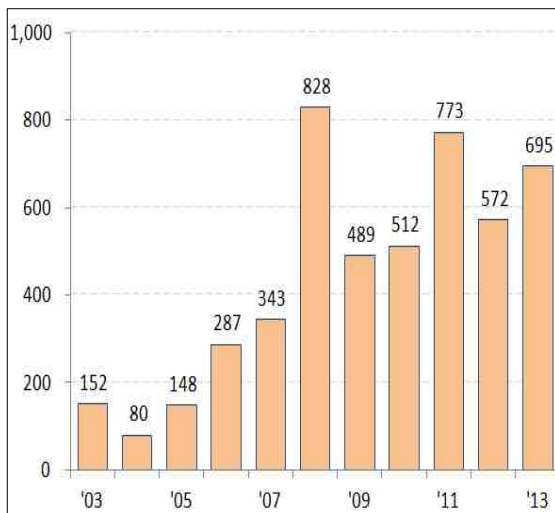
· M&A 및 Green Field 합으로 볼 때, 2003년 152억 달러에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사상 최대인 828억 달러 기록, 2013년에는 695억 달러로 나타남

- M&A의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Green Field는 상대적 감소 추세

· 2003년 M&A와 Green Field 형태의 투자비중은 각각 10.4%, 89.6%로 Green Field가 압도적으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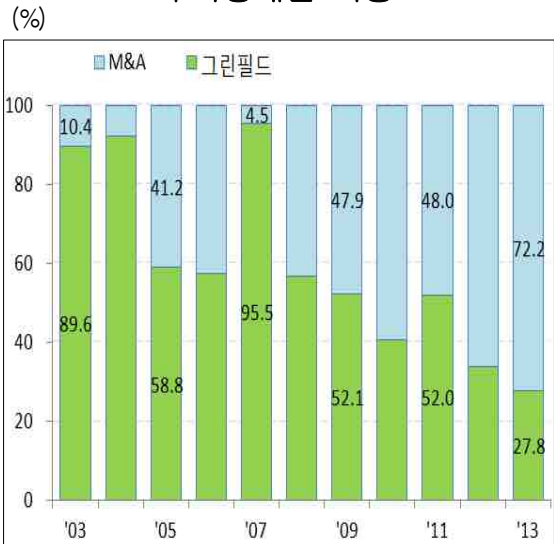
· 반면, 2013년에는 M&A와 Green Field가 각각 72.2%, 27.8%를 차지, M&A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음

< M&A 및 Green Field 투자액 (순투자기준) >
(억 달러)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순투자(Net purchase)=매입-매각.

< 투자형태별 비중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순투자(Net purchase)=매입-매각.

- 중국 M&A 투자는 2005년 이후 급속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 1990년 중국 M&A 순투자는 5건으로 13억 달러 기록
 - 2013년에는 총 228건으로, 투자금액은 1990년보다 37.5배 증가한 502억 달러로 나타남
 - 특히, 2005년부터 M&A가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

- Green Field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Green Field투자는 2003년 당시 106건, 136억 달러에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280건, 470억 달러로 증가
 - 2009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3년에는 총 314건, 193억 달러에 그침
 - 2013년의 Green Field투자액은 200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고, 투자건수도 3배정도 증가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전반적으로 Green Field투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M&A 순투자 추이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순투자(Net purchase)=매입-매각.

< Green Field 순투자 추이 >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순투자(Net purchase)=매입-매각.

3. 시사점

-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외시장 진출 욕구가 커지고 있고,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정부가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승인금액의 상향 조정 등 측면에서 제도적인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투자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첫째, 우리 기업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의 해외투자는 중국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만큼 중국의 추격 전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중국의 급속한 질적, 양적인 팽창과 공격적인 해외진출로 인해 향후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 둘째, 향후 중국 민간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
 -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정부의 전략적 분야(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상업적 수요(소비재 등)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 더욱이, 중국정부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민간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민간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가전, 식품, 의약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늘릴 것으로 판단
 - 셋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린필드형 투자 등 형태로 중국 투자자금을 적절히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 개발이 덜 된 산간지역이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항만 등 지역에서 중국의 그린필드 투자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용 가능

- 넷째, 중국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기술보호 대책도 마련
 - 최근 중국은 기술력, 영업력은 앞서 있으나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 집약형, 자본집약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 영업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본구조와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중국의 공격적인 인수에 노출
 - 중국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
 - 특히, 국내 에너지, IT,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고기술 분야에 대한 우회적 기술반출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관련 방어책 마련이 필요

- 다섯째, 우리나라도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달성해야 함
 - 중국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로 유발되는 국내외간 기업들의 시너지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
 - 특히, 우리나라도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음 **HRI**

미래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 별첨 1 : 2013년 건당 10억 달러 이상의 직접투자 사례

- 2013년 중국의 10억 달러 이상 직접투자 총액은 세계전체의 9.3%인 441억 달러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기록

< 2013년 주요국의 10억 달러이상 인수사례 >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 가	건 수	총 금액
	총	161 (100)	472 (100)
1	미국	39 (24.2)	922 (19.5)
2	러시아	7 (4.3)	644 (13.6)
3	중국	12 (7.5)	441 (9.3)
4	일본	9 (5.6)	420 (8.9)
5	캐나다	10 (6.2)	257 (5.4)
6	영국	10 (6.2)	249 (5.3)
26	한국	2 (1.2)	28 (0.6)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전체대비 비중을 나타냄.

- 주요 투자산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으로, 중국 전체 441억 달러의 69.5%인 306억 달러 투자

- 주요 투자대상국은 에너지 매장량이 풍부한 캐나다와 서비스 및 제조업 기술이 발달한 미국으로, 각각 191억, 117억 달러 기록

< 2013년 중국의 10억 달러이상
산업별 인수사례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건수	금 액
전체	12	441 (100)
원유·천연가스	6	306 (69.5)
육류포장	1	48 (10.8)
알루미늄	1	25 (5.7)
화학	1	20 (4.5)
소프트웨어	1	18 (4.2)
자동차부품	1	13 (2.8)
정부	1	11 (2.5)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전체대비 비중을 나타냄.

< 2013년 중국의 10억 달러이상
국가별 인수사례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건수	금 액
전체	12	441 (100)
캐나다	1	191 (43.4)
미국	5	117 (26.5)
중국	3	54 (12.3)
이탈리아	1	42 (9.6)
러시아	1	20 (4.5)
호주	1	16 (3.7)

자료 : UNCTAD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전체대비 비중을 나타냄.

■ 별첨 2 : 중국 국부펀드의 해외직접투자

- 중국투자공사(CIC), 국가외환관리국(SAFE) 등 대표적인 국부펀드가 단독으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
- 중국 국부펀드가 단일주체로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한 사례는 2007년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중국투자공사가 419억, 국가외환관리국이 118억 달러로 집계

< 중국 국부펀드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규모 >

(단위 : 억 달러, %)

	중국투자공사(CIC)	국가외환관리국(SAFE)	연간 합계
2007년	80 (100.0)	-	80 (100.0)
2008년	35 (31.8)	75 (68.2)	110 (100.0)
2009년	114 (100.0)	-	114 (100.0)
2010년	51 (100.0)	-	51 (100.0)
2011년	58 (88.9)	7 (11.1)	65 (100.0)
2012년	45 (62.2)	28 (37.8)	73 (100.0)
2013년	35 (80.8)	8 (19.2)	44 (100.0)
주체별 합계	419	118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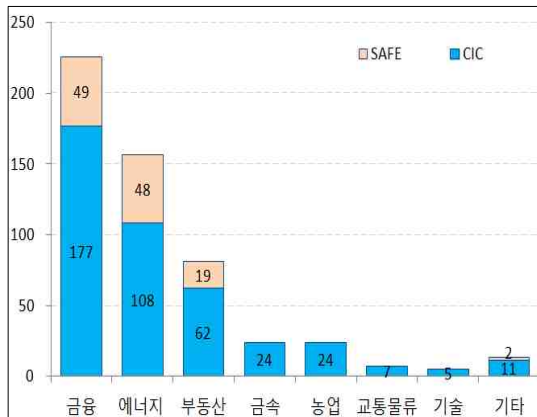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비중을 의미함.

- 2005~2013년 누적치 기준으로 볼 때, 중국 2대 국부펀드는 금융, 에너지, 부동산에 각각 226억, 157억, 81억 달러를 투자
- 동기간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25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이 147억 달러로 많음

< 국부펀드의 산업별 직접투자 >

(억 달러)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 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부펀드의 지역별 직접투자 >

(억 달러)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 경제연구원 재구성.

■ 별첨 3 : 2013년 중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최고금액 사례

- 2013년 단일 직접투자사례 기준으로 투자금액이 가장 큰 산업은 에너지, 금속, 교통·물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단일사례 기준으로 직접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중국핵공업그룹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가 파키스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 65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임
 - 이는 2013년 중국의 對에너지 분야 투자액의 10.4%를 차지하는 규모임
 - 그 다음으로는 중국전력투자공사(China Power Investment)가 아프리카 기니의 알루미늄 분야에 59.5억 달러를 투자한 사례로, 2013년 금속분야 전체 투자액의 32.0%를 차지
 - 중국 철도건설공사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철도시설에 대한 33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당해연도 교통·물류 전체 투자의 15.4%를 차지
 - 그 외에도, 광저우 동송에너지(Guangzhou Dongsong Energy)는 우간다 화학산업에 5.6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2013년 화학 산업에 대한 전체 투자액 6.7억 달러의 83.6%를 차지

< 2013년 직접투자 최고금액 사례 >

(단위 : 억 달러, %)

투자자	산업분류	분야별 최고 투자금액	상대국
중국투자공사(CIC)	농업	20.4 (17.5)	유럽 (러시아)
광저우 동송 에너지	화학	5.6 (83.6)	아프리카 (우간다)
중국핵공업그룹공사	에너지	65.0 (10.4)	아시아 (파키스탄)
화웨이, ZTE	기술 (통신)	16.0 (25.7)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국전력투자공사	금속 (알루미늄)	59.5 (32.0)	아프리카 (기니)
광저우 R&F	부동산	13.7 (7.5)	아시아 (말레이시아)
중국건설은행	금융 (은행)	7.2 (42.4)	남미 (브라질)
중국철도건설공사	교통·물류 (철도)	33.0 (15.4)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국교통건설공사	기타 (시설)	5.0 (16.3)	아랍권 (사우디)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2013년 산업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3 연간	2014			2015 연간(E)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0	3.9	3.6	3.6	3.6	
	민간소비(%)	2.0	2.5	1.5	2.3	2.8	
	건설투자(%)	6.7	4.3	0.4	1.9	3.0	
	설비투자(%)	-1.5	7.3	7.9	5.7	5.1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799	151	241	800	680
		무역수지(억 \$)	441	52	149	433	426
	수출(억 \$)	5,596	1,376	1,457	5,770	6,023	
	증감률(%)	(2.1)	(1.7)	(3.2)	(3.1)	(4.4)	
	수입(억 \$)	5,156	1,323	1,308	5,336	5,597	
증감률(%)	(-0.8)	(2.0)	(3.2)	(3.5)	(4.9)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1.1	1.6	1.7	1.9	
실업률(%)		3.1	4.0	3.7	3.6	3.4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